1. 캐주얼 팀 하나 산출물 팀 하나 서버 개발

만들고 싶은 게임

공포게임

2D 플랫포머

스토리 RPG

20xx년 유전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던 도중 특정 유전자 코드가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을 만든다는 것이 비밀리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그 연구를 진행할 때 찾은 그 특정 유전자코드는 한 일가족에게 분포해 있었고, 그들을 납치하여 여러 생체실험을 하게 된다. 그 회사는 더욱더 악하게 변하며 생체 무기를 만들기 위한 회사로 성장하여 사형수들을 데려가 유전자 조작과 관련된 생체실험을 진행하여서 굉장히 성장하게 된다. 근데 어느 순간 이 회사가 사라지고 유령회사처럼 되었는데, 이 이야기가 외부에 새어나가게 되고 한 유튜버가 이 회사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운 좋게 회사 위치를 알게 되어 잠입하게 된다. 남쪽의 한 섬에 위치한 건물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는 유전자가 조작되어 괴 생명체가 되고 살상력은 증가된 사람들이 존재 했고, 일부는 회사 내부를 돌아다녔다. 그래서 기자는 위협을 느끼고 외부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그리 단순히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결국 그들로부터 방어하거나 공격하여 도망치는 내용이다. (이 시나리오는 게임을 진행하는 도중에 나오는 단서들로 종합하여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흐름 게임 시작시 아무런 유명 생명공학 회사가 순간 사라졌다는 뉴스를 보여주며 시작한다. 그리고 한 유튜버가 다크웹 에서 관련 정보를 알게 되는 클립 만화를 보여준다. 그 후 , 그 주인공이 어두운 밤 후레쉬를 들고 큰 건물의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게임을 진행한다. 내부에는 각종 샘플들과 연구기록, 알 수 없고 혐오스러운 장기 같은 것들이 많이 보였고, 피범벅이 된 벽이 보였다. 가끔 갇혀 있는 괴생명체들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유튜브 촬영을 지속하다가, 갑자기 어딘가에서 사람의 형체를 했지만 얼굴이 괴상망측한 생명체가 자신에게 달려왔고, 지형을 피해 달아나게 된다. 허나 그런 생명체는 한둘이 아니었고, 키가 매우 크거나, 발이 여러 개 달렸거나, 공중부양을 는 등의 특수한 능력을 가진 괴생명체들도 만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힘겹게 얻은 권총으로 괴생명체들을 차근차근 처치해 나가며 탈출 방법을 찾아보았다. 1층 로비의 문으로 나갈 수가 있었는데, 문을 열기 위해선 생체인식 같은 것이 필요해 보였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다시 건물을 헤치며 괴생명체들을 죽여 나갔고, 마침내 문을 여는 방법을 찾았는데, 특정 장소에서 특수물질을 주입 받아 인증된 생체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그 특수물질을 주입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 문을 열자 나온 것은, 밖이 아닌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계였고, 몇시간 뒤 몸이 쇠약해지고 기분이 이상해지는 현상 말고는 얻은 것이 없었다. 사실 그 특수물질에는 바이러스가 소량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이 회사가 사라진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자신이 괴생명체가 되가는 것을 느낀 그는 그 의문의 기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기계는 회사에서 진행중이었던 시간 왜곡 타임머신 이었다. 결국 그는 이곳에서 나가 치료받기 위해선 과거의 나를 끌고 와서 탈출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시간을 되돌리게 된다. 그리하여 과거의 나를 만나지만, 결국 말을 하기 직전 의식을 잃고 괴생명체가 되어 그에게 달려들게 된다.